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 
배포일자		2021년 11월 8일(월) 총 4매		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실	담 당 자 • 기획담당 • 담당자	양상훈 ☎440-2131 황선조 ☎440-2135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		

박 시장, 인천시민 일상회복 연착륙 ‘모든 역량 집중’ 당부

-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조속 지급 개시 포함, 관련 종합대책 조속 마련 촉구 -
- 코로나19 방역의 모범도시로서 일상회복에 있어서도 모범 되어야 할 것 강조 -

박남춘 인천시장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바탕으로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‘단계적 일상회복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.

박 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‘11월 실·국장회의(비대면 영상회의)’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회복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‘인천시민 일상회복 종합대책’과 함께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.

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우리 인천시는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가장 신속한 검사·격리 체계 운영을 통해 방역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일상회복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모범이 되어야 할 것”이라면서,

“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신속히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”고 말했다.

또한 “시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더해 인천시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 “이라면서 ”백신접종과 방역·의료체계, 민생경제 및 소비진작 등 전 분야에 걸쳐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“고 강조했다.

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각 분야별 대책은 백신접종과 든든한 방역·의료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덧붙였다.

박 시장은 “기존 접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백신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백신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 실국에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”면서 “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 당국과도 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이어 건강체육국에는 확진자가 급증할 때를 대비한 의료대응체계도 면밀히 갖출 것을 주문했다. 특히 생활치료센터, 병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재택치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도 준비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.

다만, 백신접종과 치료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

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박 시장은 “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자칫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” 이라면서 “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변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필요한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” 고 덧붙였다.

박 시장은 “우리 시는 시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바탕으로 작년 초부터 수도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체제를 유지해온 도시이니만큼, 시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이어 “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함께 인천만의 대책마련과 조속한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” 이라고 덧붙였다.

아울러 박 시장은 전 실국에 “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지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, 경제 등 일상회복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” 고 주문했다.

이외에도 본격적인 예산국회 과정에서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예산안으로 의결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히

기할 것을 당부했다.

이에 더해 박 시장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‘시민안전에는 과잉 대응’이라는 기조로 안전 점검과 화재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.

< 붙임 > 실국장 회의자료 및 말씀자료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9:30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